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5월 3일

ISSN 1976-0507 Vol. 1 No. 5

프랑스 1차 대선 결과 및 결선투표 전망

오 태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asrocl01@kiep.go.kr, Tel: 3460-1159)

- ▣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83.78%의 투표율을 기록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좌·우의 대결 양상 속에 치러졌으며,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와 사회당(PS)의 세골렌 루아얄이 각각 31.18%와 25.87%의 득표율로 2007년 5월 6일에 있을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함.
- ▣ 프랑스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이에 대해 사르코지는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정책,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체제 등을 제시한 반면, 루아얄은 복지정책 개혁, 주거문제 해결, 고용보장 등을 제시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임.
- ▣ 1차 투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세골렌 루아얄을 누르고 차기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프랑수와 바이루의 지지자들이 결선투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2007년 4월 22일 공개된 CSA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루를 지지한 유권자 중 45%는 루아얄을, 39%는 사르코지를 결선투표에서 선택할 것으로 나타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 2007년 4월 22일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와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이 각각 1, 2위를 차지함.

표 1. 2007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단위: %)

정당별 대선 후보	득표율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31.18
사회당(PS)의 세골렌 루아얄	25.87
프랑스민주연합(UDF)의 프랑수와 바이루	18.57
국민전선(FN)의 장 마리 르펜	10.44

자료: Ministry of Interior

- 전체 투표에서 우파는 43.86%, 좌파는 36.45%, 중도파는 19.7%의 지지를 받음.
- 2002년 대선에서 6.8%의 득표율을 보였던 프랑수와 바이루는 이번 1차 대선에서 18.57%를 득표하며 중도파의 부상을 이끌었음. 반면 극우파 후보인 장 마리 르펜은 2002년 16.9%의 득표율로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나, 이번 대선 1차 투표에서 10.44%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침.
- 총 12명의 후보자가 대통령선거에 나섰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상위 후보 4명에게 표심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헝가리 이민 2세대로, 2007년 1월 대중운동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추천됨.
 - 주요 행정 경험으로 예산장관, 내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대선 후보자 중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음.
 - 우파인사답게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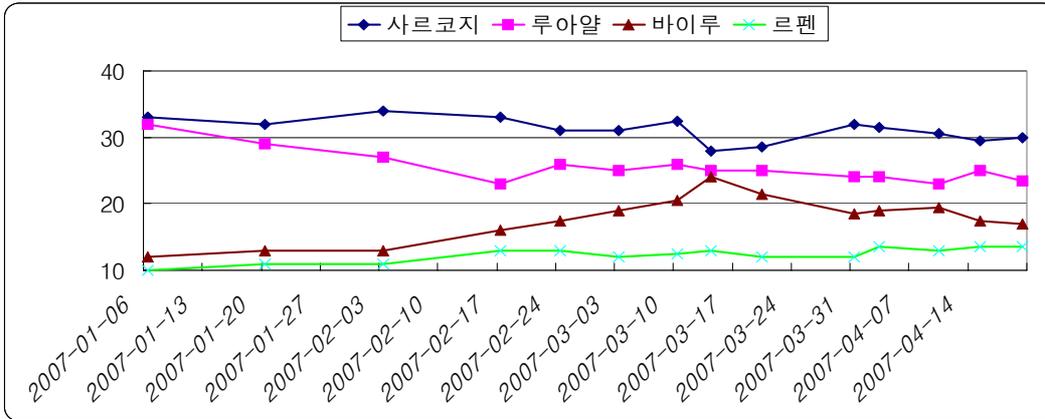
-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시라크 대통령은 2007년 3월 11일 대선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 정치구호는 “정의와 질서의 요구”,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임.
 - 함께 사진 찍고 싶은 정치인으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꼽음.
-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의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은 환경장관과 가족장관을 지냈으며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남성 위주의 정치문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음.
- 2006년 11월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천된 루아얄은 대통령 결선투표에 오른 최초의 여성 후보자로, 엘리트 관료의 산실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한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임.
 - 선거 초반 루아얄은 사르코지보다 앞선 지지율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부족, 캐나다 퀘벡 독립문제, 그리고 중동·중국 방문에서의 잇단 실언 및 경험 부족으로 사회당 내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음.
 - 정치구호는 “정의로운 질서”, “더 공정하면 프랑스는 더 강해진다”임.
 - 함께 사진 찍고 싶은 정치인으로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을 꼽음.
- 중도우파인 프랑스민주연합(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DF)의 프랑수와 바이루(François Bayrou)는 이전의 중도우파 정권에서 교육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98년 이후 프랑스민주연합을 이끌고 있음.
- 200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음.
 - 좌·우파의 분열을 넘어서는 인재 등용을 약속함.
 - 바이루는 자신을 이탈리아의 로마노 프로디 같은 지도자로 정의함.
- 극우파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의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200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조스팽 당시 총리를 이기고 결선투표에 오른 극우인사임.
- 강력한 공권력, 경제보호주의,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주장함.

2. 대선 투표과정과 후보자간 주요 선거정책

가. 치열했던 대선 1차 과정

- 이번 선거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선거 중 가장 치열했으며, 이를 대변하듯 투표율이 1974년 대선(84.2%)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83.78%를 기록함.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1.6%였음.
- 선거 1주일 전까지도 부동표가 유권자의 1/3에 이를 만큼 많았으며, 따라서 이들 부동표가 대선의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
-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좌·우 대결양상을 보였기 때문임.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좌파 표가 분열되어 유력한 후보였던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가 국민전선 장 마리 르펜에게 밀려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함. 이러한 실패의 기억을 가진 좌파 지지층이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인 단결을 주장했고, 우파 지지층도 단결하게 되어 대결양상이 나타남.
- 이번 선거는 작년 180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 유권자 증가율이 1981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등록된 총 유권자수가 4,450만 명이 됨. 새로 등록된 유권자 대부분이 이민자 혹은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임.
- 이번 선거 과정에서 3위 후보였던 프랑스민주연합의 프랑수와 바이루의 지지율이 2월 들어 상승하면서, 2차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를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바이루가 급부상했음.
- 실제로 2차 결선투표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르코지와 루아얄의 대결에서는 사르코지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르코지와 바이루의 대결에서는 바이루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남.
- 바이루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은 전통적으로 좌파 지지율이 높은 아랍 및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좌·우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중도파에 대한 반사적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임.

그림 1. 대선 주요 후보 4명의 지지율



자료: Ipsos, Apri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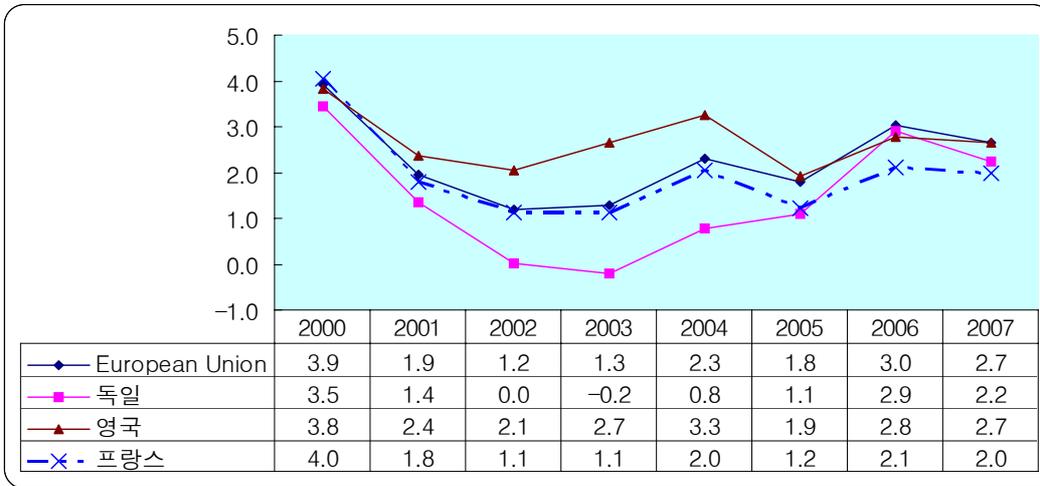
- 사회당의 주요인물 중 한 사람인 미셸 로카르는 사르코지를 이기기 위해 사회당과 프랑스민주연합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선거기간 동안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루아얄은 당 내부의 이러한 주장에 불쾌함을 나타냄.
- 바이루도 처음에는 후보단일화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1차 선거 이전에는 어떠한 결합도 있을 수 없다고 표명함으로써, 사르코지에 대항하는 후보단일화는 실패로 끝남.

나. 후보자간 주요 선거정책

- 프랑스는 지난 몇 년간 EU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8%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대선 후보자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실업률 개선에 큰 비중을 둠.
- 2006년 프랑스는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EU의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고, EU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음. 심지어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독일의 경제성장률에도 뒤처진 모습을 보임.
 - 사르코지는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정책,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루아얄은 복지정책 개혁, 주거문제 해결, 고용보장 등을 제시함.

그림 2. 프랑스의 최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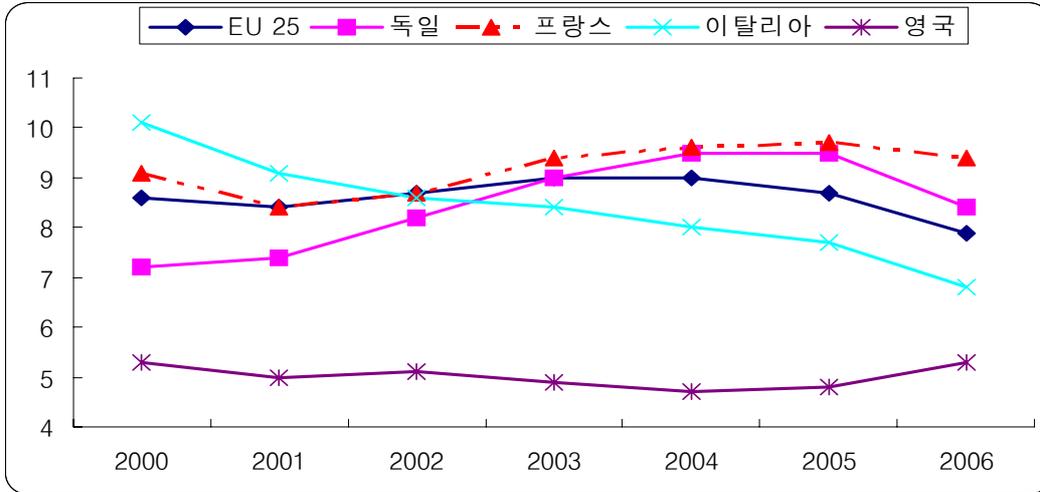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April 2007.

- 2006년 경기침체 속 프랑스의 실업률은 9.4%를 기록했고 EU 회원국 중 폴란드 (13.8%), 슬로바키아(13.4%) 다음으로 높았음. 특히 젊은층, 50세 이상의 장년층, 이민자들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임.
- 사르코지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통한 고용 증대를 제시함.
 - o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 o 임금부담이 증가된 기업에는 감세혜택을 주고, 가정부·집안청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세금혜택을 줄 것을 약속함.
 - o 최소한(minimum)의 사회보장이 근로의 의지를 불러온다고 주장함.
 - o 고용제도는 현재의 종신제보다 유연한 단기계약제 도입을 제안함.
- 루아얄은 근로자의 소비능력 및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o 2012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16.5% 증가한 1,500유로로 인상함.
 - o 사회당이 주장한 주 35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줌.
 - o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젊은이에게 1만 유로를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함.
 - o 젊은이들이 고용과 관련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함.

그림 3. 유럽 각국의 실업률



자료: Eurostat, April 2007.

- 프랑스정부의 재정은 2001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함.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했으며, 2006년 정부부채는 GDP의 64.6%를 기록하여 EU의 성장·안정협약(SGP: 재정적자 3% 미만, 정부부채 60% 미만) 기준을 넘었음.

표 2. 유럽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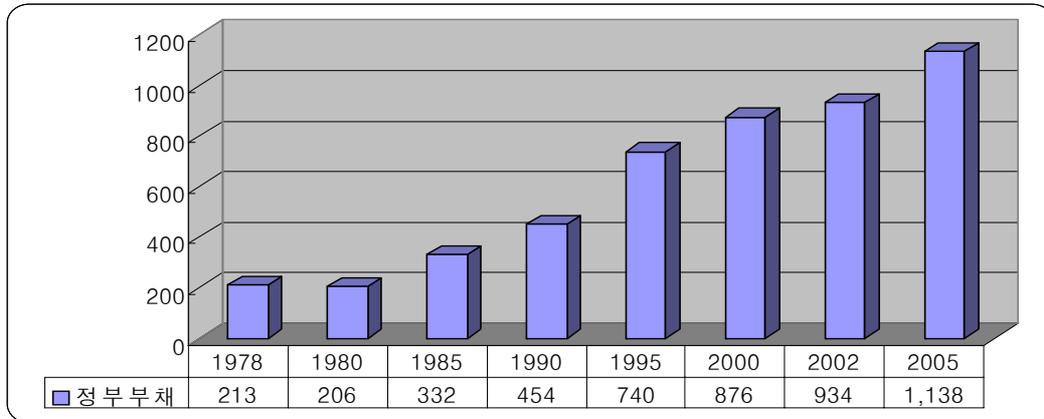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	-0.1	-1.0	-2.3	-2.9	-2.6	-2.2	-1.7
독일	-1.1	-2.8	-3.6	-4.0	-3.7	-3.2	-1.7
프랑스	-1.5	-1.6	-3.2	-4.1	-3.6	-3.0	-2.6
이탈리아	-0.3	-1.5	-2.9	-3.4	-3.4	-4.1	-4.4
영국	1.9	1.1	-1.7	-3.3	-3.2	-3.4	-2.7

자료: Global Insight, April 2007.

- 사르코지는 2012년까지 전체 세금부담을 4% 줄이는 동시에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은퇴 예정인 45만 명의 공직자 중 절반만을 교체하겠다고 천명함.
- 그러나 사르코지의 예산팀이 이를 수정하여, 세금부담을 1% 감소시킬 것을 제안함.
- 기업연구소(Institut de l'entreprise)는 사르코지의 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함.

그림 4. 프랑스 정부부채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RESF).

- 루아얄은 재정 및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음. 오히려 연구 및 개발(R&D)과 고등교육,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루아얄은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추가적으로 350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루아얄의 정부지출을 늘리는 계획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됨. 일부 전문가들은 350억 유로가 아닌 630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함.
- 2005년 파리 외곽에서 일어난 이민자 폭동이나 2006년 시행된 학교에 다니는 불법이민자 자녀 추방 등, 이민자 관련 문제가 프랑스의 중요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후보자들도 이민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함.
- 사르코지는 내무장관 재직 당시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최근 이민자 및 빈곤층의 저항을 의식하여 이민·국가정체성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를 신설할 것을 약속함.
- 프랑스 이민을 원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프랑스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검증받도록 하여, 이민 노동자들이 가족을 프랑스로 불러오는 것이 어렵게 됨.
- 그러나 양질의 노동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 루아얄은 직업의 유무나 자녀의 재학 여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불법이민자에게도 시민권을 줄 것이라고 밝힘.

- 특히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부활시키고,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파리 교외지역(banlieues)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약속함.
- EU는 2004년 Hague Program를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 이민·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망명 절차를 공동 관리하도록 하여, EU 회원국간 상이한 정책을 통합하고자 함.
- 프랑스는 자국과 신규 EU 가입국간 인력이동에서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허가하고 있음. 즉 프랑스나 기존 EU 15개 회원국의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직종에서만 신규 가입국 국민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함.
- 2005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조약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견해 차이가 있음.
- EU헌법조약의 핵심내용은 2년 6개월 임기의 EU 대통령직 신설, 외무장관직 신설, 인권규정 명시, 의사결정구조 단순화, 외교·국방·사회안전·조세 이외의 사법·교육·경제정책에 대한 국가별 비준절차 생략 등임.

표 3. 각국의 EU헌법 처리 현황

비준 국가(18)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부결 국가(2)	프랑스(2005년 5월 부결), 네덜란드(2005년 6월 부결)
보류 국가(7)	영국, 체크,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 사르코지는 핵심조항을 간추린 일명 ‘미니헌법’을 제안하며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에서 EU헌법이 비준되어야 한다고 피력함.
- 루아얄은 노동자의 권리를 비롯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변화 등 더 많은 사회적 내용(social content)이 EU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EU헌법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선언함.
- 한편 EU의 확장과 관련해서 사르코지와 바이루는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루아얄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3. 2차 결선투표 전망

- 1차 투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가 루아얄을 앞질러, 자크 시라크에 이어 차기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됨.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사르코지가 루아얄에 박빙의 우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2차 결선투표 예상

(단위: %)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일	예상 득표율	
		니콜라 사르코지	세골렌 루아얄
LH2	2007. 4. 23 / 4. 30	54.0 / 52.0	46.0 / 48.0
CSA	2007. 4. 22 / 4. 25	53.5 / 52.0	46.5 / 48.0
BVA	2007. 4. 22 / 4. 25	52.0 / 53.0	48.0 / 47.0
Ifop	2007. 4. 22 / 4. 28	54.0 / 52.5	46.0 / 47.5
Ipsos	2007. 4. 22	54.0	46.0
TNS Sofres	2007. 4. 26 / 4. 28	51.0 / 52.0	49.0 / 48.0

자료: LH2; CSA; BVA; Ifop; Ipsos; TNS Sofres.

- 2007년 5월 6일 있을 2차 결선투표에서는 프랑스민주연합 후보 바이루를 지지하던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이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루의 지지층은 중도좌파, 중도우파, 중도파 등 그 폭이 넓음.
 - 4월 22일 공개된 CSA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루를 지지한 유권자의 45%는 루아얄을, 39%는 사르코지를 결선투표에서 선택할 것으로 나타남.
 - 사르코지는 새 정부 구성에 프랑스민주연합 인사를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공언함.
 - 사회당은 바이루에 대한 지지가 사르코지에게 반감이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평가하며 사회당에 대한 지지를 주장함.
 -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좌파 후보자들은 루아얄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 바이루가 이번 2차 투표에서 결정적인 키를 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택일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함. 결국 바이루는 사르코지와 루아얄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바이루의 지지층이 좌파와 우파에 골고루 존재하기 때문에 두 결선투표 후보자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프랑스민주연합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선택을 거부하고 양쪽 진영으로부터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6월에 있을 총선에서 성공이라는 정치적 실익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임.
- 2차 투표의 결과는 2007년 6월 이내로 예정되어 있는 의회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하원에서도 대중운동연합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반사르코지 연합을 결성하자는 목소리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왔음.

표 5. 프랑스 하원 정당별 의석수

	1986년 3월	1988년 6월	1993년 3월	1997년 6월	2002년 6월
대중운동연합(UMP)	n/a	n/a	n/a	n/a	369
사회당·극좌당(PRG)	212	276	57	246	148
공화국연합(RPR)	154	130	257	140	n/a
프랑스민주연합(UDF)	132	131	215	113	22
공산당(PCF)	35	27	23	38	21
국민전선(FN)	35	1	0	1	0
기타	9	12	25	39	17
총	577	577	577	577	577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